

《하나의 진실, 평화를 향한 약속》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폭력과 전쟁 없는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다짐하는 전시이다.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는  
모든 전쟁 피해,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여성인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송희준 | Hee-Jun Song, *Roots* 2017, Mixed Media, 72.7×91cm

## 참여작가

강애란(Airan Kang)  
김시하(Siha Kim)  
도미야마 다에코(Tomiyama Taeko)  
백정화(Junghwa Kim Paik)  
송희준(Hee-Jun Song)  
얀배닝(Jan Banning)  
윤아린(Arin Yoon)  
이창진(Chang-Jin Lee)  
프랭크 반오쉬(Frank van Osch)  
홍리우(Hung Li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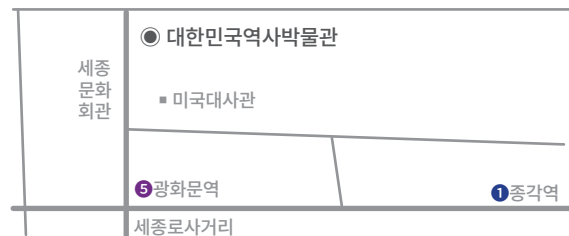
## 주요자료소장처

국가기록원  
국립여성사전시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민족과 여성 역사관  
옛생활 체험박물관 타임캡슐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JACAR)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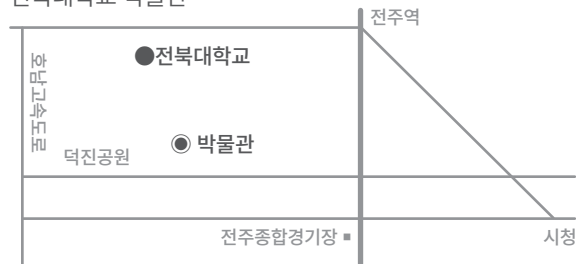
2017년 7월 3일 — 7월 15일 (13일)  
오전 10시~오후 6시 (수·토 오후 9시 연장개장) 휴관 없음  
웹. [www.much.go.kr](http://www.much.go.kr) 전화. 02. 3703. 9200  
주소. (031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경복궁 ■ 광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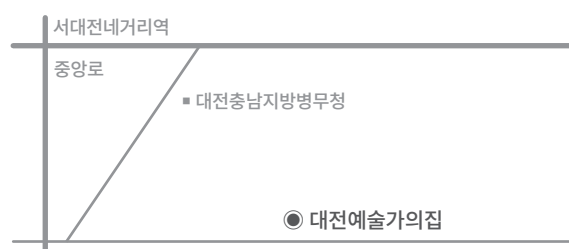
## 전주 전북대박물관

2017년 7월 19일 — 8월 5일 (18일)  
월~토 오전 9:30~오후 5:30 (매주 일요일 휴관)  
웹. [museum.chonbuk.ac.kr](http://museum.chonbuk.ac.kr) 전화. 063. 270. 3488  
주소. (54896)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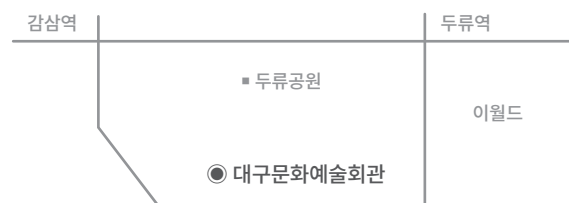
##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2017년 8월 10일 — 8월 19일 (10일)  
화~일 오전 9시~오후 8시 (매주 월요일 휴관)  
웹. <http://dah.dcaf.or.kr> 전화. 042. 480. 1081~8  
주소. (34944)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문화동 1-27)



## 대구문화예술회관

2017년 8월 23일 — 9월 2일 (11일)  
화~일 오전 9시~오후 8시 (매주 월요일 휴관)  
웹. <http://artcenter.daegu.go.kr> 전화. 053. 606. 6114  
주소. (42672)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2017년도 순회전

# 하나의 진실 Truth: Promise for Peace 2017 07.03 - 2017. 09.02



## Prologue

본 전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전쟁의 참상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작품과 주요 사료가 함께 선보인다.



백정화, 소녀들을 기억하며 | Junghwa Kim Paik, In Memory of Her  
2017, Mixed Media, 76×102×18 cm

## 1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가 역사의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좌) 안베닝, 파이니 | Jan Banning, Paine  
2008, Archival Digital Print from Digital Original, 124.5× 89cm  
(우) 안베닝, 와이넴 | Jan Banning, Wainem  
2008, Archival Digital Print from Digital Original, 124.5×8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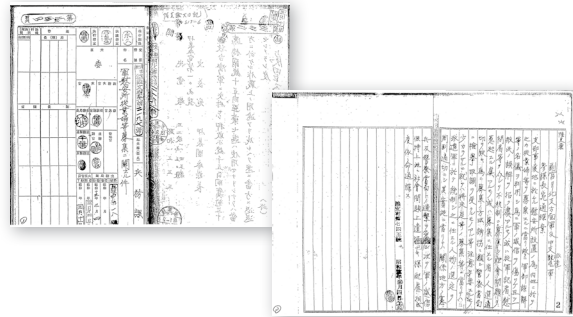


강애란, 환타지아 | Airan Kang, Fantasia  
2015, Print on Paper, 40×30cm (each)

## 2 낯선 곳 전쟁터의 위안소, 찢겨진 삶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그들은 왜 끌려갈 수밖에 없었나?

식민지 조선 상황에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사기, 협박 및 폭력, 인신매매 및 유괴 등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되었다.



육군성부관통첩 「군위안소 종업부녀 등 모집에 관한 건」 (1938. 3. 4)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 |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참혹한 삶

위안소는 일본군의 전선을 따라 계속 설치되었다. 이곳에서 일본군‘위안부’ 여성의 삶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1942-1944)  
타임캡슐박물관 소장, 복제

### | 환영받지 못한 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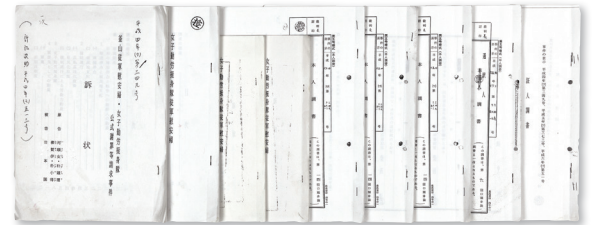
1945년 8월, 일본군이 항복하고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민간인 억류소에 있다가 귀환선을 타거나, 남아서 현지인으로 살아가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돌아오기도, 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은, 사회적 냉대와 차별 속에 침묵하며 살아가야 했다.



홍리우, 이상한 과일(일본군‘위안부’) | Hung Liu, Strange Fruit(Comfort Women)  
2006, Mixed Media with Resin, 106.7×218.4cm

## 3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세계 여성인권의 도화선이 되다

이제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및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등 피해지역과 미국 여러 곳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념조형물을 세우는 등 응원에 힘을 싣고 있다.



일본정부에 보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소장 및 증언 속기록 등(1999)  
민족과 여성역사관 소장

## Epilogue 기억과 다짐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여성인권의 화두가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이제 평화를 향한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을 환기하고, 평화와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Photozone | 체험존·포토존

“평화를 위한 당신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당신만의 평화의 약속을 엽서에 적어주세요.

## Archives | 도서 아카이브

전시의 끝에는 약 30여권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